

2003년 제주의 봄,
쓰러진 동상 옆에 앉아 있던
해녀의 재판

동상아시, 고이래



주최/주관 **IDA** 프로덕션아이디에이

후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창작주체
ARKO Partners

본 공연은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추진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창작주체 지원사업에 선정된 공연입니다.

copyright© 2026 by 프로덕션IDA Rights Reserved.

2003년 제주의 봄,
쓰러진 동상 옆에 앉아 있던
해녀의 재판

동백아시, 고이래



2026.04.03^금 - 12^일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

목차

1부 <돛박아시, 고이래> 작품 이해

제주 4.3과 작품과 제주워크숍 2

작품과 등장인물 소개 4

2부 <돛박아시, 고이래> 작품의 시작

작가의 글 6

연출의 글 7

3부 <돛박아시, 고이래> 창작기록

작품타임라인 8

연습일지 9

4부 <돛박아시, 고이래> 배우 아카이브

황세원 10

윤일식 11

송철호 12

황재희 13

서미영 14

민경준 15

조성현 16

한은주 백지선 17

이의현 이현종 18

신수호 조인 19

조연출의 글 21

5부 <돛박아시, 고이래> 제작진

무대디자인 22

조명디자인 사운드디자인 23

영상디자인 의상디자인 24

분장디자인 25

6부 단체소개

프로덕션IDA 26

7부 크레딧

크레딧 27

추천의 글, 도움주신분들 28



제주 4·3과 작품

제주 4·3은 오랜 시간 말해지지 못한 채 남겨져 있던 역사다.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의 소요 사태를 거쳐
1954년까지 이어진 이 사건은,
무력 충돌과 그 진압 과정에서
수많은 민간인이 희생된 비극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로 정리되지 못한 채
오랫동안 침묵과 왜곡 속에 머물러 왔다.
공식적인 사과와 진상 규명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여전히 서로 다른 시선과 입장 속에서
끝나지 않은 이야기로 남아 있다.

〈돛박아시, 고이래〉라는 이 거대한 역사를 설명하기보다,
그 안을 살아야 했던 한 사람의 시간으로부터 다시 바라본다.

이름 없이 사라진 사람들, 기록되지 못한 기억들,
그리고 끝내 말해지지 못한 시간들.

그 이야기들은 우리가 알고 있다고 믿어온 역사에 조용히 균열을 만든다.
이 작품은 또한 '화해'라는 이름으로 덮여버린 시간들을 돌아본다.
충분히 말해지지 못한 채 지나간 기억들, 이해와 책임 없이 봉합된 시간들.
그 속에서 여전히 남겨진 질문들은 지금의 우리에게로 이어진다.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외면해 왔는가.
〈돛박아시, 고이래〉라는 역사를 재현하는 데 머무르지 않는다.
침묵 속에 남겨진 목소리들을 다시 지금으로 불러내며,
우리가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기억하고 기록할 것인지 조용히, 그러나 깊게 묻는다.
이 무대는 지워지지 않은 시간들을 마주하기 위한 자리이자,
그 기억을 각자의 자리에서 이어가기 위한 하나의 시작이다.





제주 워크숍

눈앞에서 이별하고 생사조차 알 수 없었던 시간을
기록해 둔 것 같은 공간에서
비바람과 함께 서늘함이 느껴졌지만,
마음 한 편에는 어떤 뜨거움도 느껴졌다.
공연을 잘 만들고 싶다는 뜨거움...

고운정 역 **서미영**



90 노인이 엉엉 울면서 당시 상황을 증언해 주셨다.
엄마 가슴 위에서 총에 맞고도 살아난 노인이 해줄 수 있는
말이 많이 없으며 마른침을 삼키고 침묵을 던져줬다.
우리도 같이 엉엉 울었다.

강선웅 역 **윤일식**

연극은 기억을 몸으로 옮기는 작업이다.
역사의 문장과 사진 속에서만 숨 쉬던 이름 없는 사람들의
숨결을, 무대 윗몸과 눈빛으로 다시 불러내는 일일 것이다.
4·3의 역사는 단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도 답해야 하는 질문이자
아이들과 함께 미래로 가지고 나가야 하는 책임이 아닐까.
내 아이들이 자라서 마주할 세상은 어떤 얼굴을 하고 있을까.
그들에게 전해줄 '평화'는 단지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서로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는 용기이기를.

부춘옥 역 **황재희**



애초에는 기록을 위해 담담히 앉아 있었지만,
생존자분들이 들려준 어린 날은 내 아이들의 얼굴로 스며들듯 겹쳤다.
감당할 수 없었을 그 시절의 두려움과 상처가 가슴을 깊이 흔들었고,
어느새 나는 그 아이들을 두고 눈을 감아야 했던 부모를 대신해
지나왔던 그 시간들을 울어주는 사람이었다.

프로듀서 **서희원**



돌박아서, 고이래

작품과 등장인물 소개

2003년 봄, 제주.

추모 동상이 쓰러지고, 그 위에 수십 개의 빗창이 꽃힌 채 발견된다.

현장에서 체포된 이는 60대 해녀 고이래.

그러나 그녀는 어떤 질문에도 답하지 않은 채,

이유를 밝히지 않는다.

마을 사람들 역시 사건에 대해 입을 닫는다.

그러던 중, 서울에서 자신을 가족이라 주장하는 한 인물이 찾아오고,

오래 묻혀 있던 시간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한다.

동상의 주인은 누구였는지, 그리고 왜 이 사건이 벌어졌는지.

쉽게 꺼낼 수 없었던 이야기들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낸다.

고이래의 삶은 오랫동안 설명되지 않은 채 남아 있었다.

이름 붙일 수 없는 시간들, 말해지지 못한 기억들.

사건은 그 침묵의 껍질을 조금씩 깨뜨리기 시작한다.

재판이 시작되고, 눌러두었던 말들이 하나둘 밖으로 흘러나온다.

오래 묻혀 있던 목소리들, 서로 다른 기억들,

그리고 각자의 선택들.

그 이야기들은 과거에 머물지 않고

지금 이 순간까지 이어져 우리 앞에 놓인다.

〈돛박아시, 고이래〉는 거창한 역사를 설명하기보다,

한 사람의 삶을 따라가며 그 안에 남겨진 질문들을 마주하게 한다.

무엇은 끝내 말해지고, 무엇이 끝까지 침묵으로 남는지.

이 무대는 누군가의 오래된 이야기이자,

지금울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어쩌면,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일지도 모른다.

돛박아시, 고이래

인물관계도



돌박아시, 고이래

군인들 | (제주)도민들

시간 현재 2003년
과거 1948년

장소 경찰서 - 주 무대
어촌계 공동 작업장
바닷가
부춘옥 집 / 고운정 집
오름에 있는 동굴
법정

공연 하이라이트 영상



인터뷰



애도해야 할 이들은
죽음의 그늘을 헤치고자
술한 세월을 버둥거려야 했다.

애도를 받지 못한 이들은
죽었으나 죽지 못한 채
긴 시간, 이 땅에 머물러야 했다.

그렇게 섬은
무거운 침묵 속에 좌초되고
속절없이 시간을 흘려보냈다.

슬픔과 분노, 두려움과 억울함은
피와 뼈와 살과 함께
묻히고, 썩고, 잊혀갔다.

살아남았든 그렇지 못했든
역한 역사에 감겨
제대로 된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칠십 해를 넘겼다.

하여 이제,
동백꽃 붉은 잎을 한 잎 한 잎 젖혀
그들을 불러내려 한다.
분노와 억울을 헤아리고
충분한 애도와 함께
흙으로, 하늘로, 제 자리로 보내
가슴의 묵은 멍울을 어루만지려 한다.

한순간도 사라진 적 없는 그들과
조금도 자유롭지 않은 우리가
결국, 하나임을 알기에.

더는 봉합된 야만의 역사에
잠식되지 않기 위해.

작가 **이미경**

대표작

〈그게 아닌데〉 〈우울군 슬픈을 늙으면〉
〈우와우와우우와〉 〈낭만적인 개소리〉

슬픔을 들키지 않아야 살아남았던 시절.
억울함을 가슴에 묻고 물질을 배우며 홀로 견뎀
한 해녀의 기록이다.

무대 위 쓰러진 비석은 시계추가 되어
우리의 시간을 과거로 돌린다.
그곳에서 우리는,
말없이 노래해야만 했던 그녀의 이름을 듣는다.

어느 시대에도 희망은 있었고,
정의는 존재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들이
조용히 스며들어 자리 잡길 바라본다.

동백당에서, 고이래



연출 김희영

대표작
〈동백당: 빵집의 사람들〉 〈배소고지 이야기〉
〈그녀를 용서할 수 있을까〉

작품 타임라인

2025

09.25.

첫 연습

“이미 오래 알고 있던 이야기처럼”

10.16.

제주어 작업

“제주어를 감각으로 받아들이는 노력”

10.21.

블로킹 시작

“텍스트가 공간 위에 놓이기 시작”

10.28.

프로필 촬영

“인물들이 각자의 얼굴로 정리되다”

11.24.

마지막 연습실 연습

“연습실에서의 마지막 장면을 마친다”

11.25.

배우들 제주 이동

“이야기가 시작된 곳으로 이동”

11.26.

배우들 극장 IN

“공간이 바뀌며 감각도 달라지다”

11.27.

프로필 촬영

“모든 요소들이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

11.28.

첫 공

“처음으로 관객과 마주한 날”

11.29.

제주 4.3 피해자들 공연 관람

“과거의 사람들과 현재의 시간을 나누다”

11.30.

막공

“공연을 끝나고, 질문은 남았다”



2026

02.06.

재공연 첫 연습

“같은 이야기를, 다른 마음으로 다시 시작”

02.20.

끝나지 않는 테이블 작업

“계속해서 되짚다”

02.23.

블로킹 시작

“다른 발걸음으로, 의미를 조정하다”

03.16.

첫 런스루

“다시 시작, 다시 연습”

04.03.

첫 공

“기억해야 할 날에, 다시 막이 오르다”



연습일지

진심

〈돛박아시, 고이래〉는 ‘진심’으로 만들어진 연극이다.
남겨진 사람들이 하고 싶었던 말, 남기지 못한 사람들이 남기고
싶었던 말.
우리는 그 사이에서,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다.
이 작업은 그 작은 진심에서 시작되었다.



달고자 하는 진심

“다들 알고 있지만, 끊임없이 기억해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 연출

“4.3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 안에도 사람을 지키려 했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 작가

“저는 지금 재일제주인 4.3 희생자 위령비가 있는 오사카-통국사에 있습니다.
어제는 까마귀도 울고, 짙짙하고 비도 왔는데 오늘은 해가 많이 따가울 정도입니다.
우리 〈돛박아시, 고이래〉 대본 파일로 위령비 앞에 세우고
제주도서 우리 작품 사람들과 잘 만나게 해달라 기도드렸습니다.” - 배우 황재희

눈빛과 손길로 전해진 진심

11월 29일, 4·3 피해 당사자분들이 객석에 함께했다.
해녀 고이래의 재판을 지켜보며, 한마디 한마디에 귀 기울이고
박수로 응답했다.
공연이 끝난 뒤, 관객들은 배우들의 손을 잡고 눈을 마주쳤다.

“연기하면서 그런 느낌은 처음이었어.” - 배우 송철호



다시 돌아온 진심

이 공연은 다시 막을 올린다.
이미 한 번 지나온 이야기였지만, 같은 방식으로 돌아오지는 않
았다.
어떤 감정은 열어졌고, 어떤 장면은 더 또렷해졌다.
익숙해졌다고 생각한 순간들 속에서, 오히려 새로운 질문들이
남았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공연을 ‘다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시 묻는 과정이라고 느낀다.
어떤 진심은 그대로, 어떤 진심은 더 단단해져 돌아왔다.
그리고 어떤 진심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 이야기는 여전히 어딘가에 머물러 있다.
우리의 진심이, 관객에게 달기를 바란다.

돛박아시, 고이래

배우인터뷰_황세원



유난히 뜨거웠던 여름,
올레길 위에서
두 다리가 타들어 갔다.
검붉게 그을린 다리는
한 해가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다.
건고 또 겹은 그 길 위에
몰랐던 시린 이야기들.
눈부신 섬,
그 눈부심 아래
인간의 잔혹한 시간.
그 땅 위에 서 있다는 것만으로
고개가 저절로
땅을 향한다.
그러나
나의 두 다리는 기억한다.
그 섬의 빛을,
그 땅의 버팀을.
그래서 나는 다시
그 길을 걷는다.

총소리가 북촌 하늘 찢던 날이었다
덜 설우와사 눈물나주
어머니 고무신에
아버지의 피가 묻은 날이었다

〈기억의 목소리- 사물에 스민 제주 4·3 이야기〉
허은실 글, 문학동네 중에서



“폰 사름덜 나영 엮을 생각 맑서.”
돛박 아시랑 얹히민 가슴의 멍만 듭니다게...”

고이래 역 **황세원**

〈동백당; 땃집의 사람들〉 〈땃뿌리〉 〈배소고지 이야기; 기억의 연못〉

16회 밀양여름공연예술축제 손숙 연기상
제44회 서울연극제 연기상

배우인터뷰_윤일식



동백꽃은 4·3의 영혼들이 붉은 동백꽃처럼
차가운 땅으로 소리 없이 쓰러져갔다는 의미를 가지고
4·3을 상징하고 있다.
여한 없이 자는 것 같아 좋아했던 동백꽃은,
이제 아무것도 모른채 사라져간 영혼들의 상징으로
내 안에 다시 새겨졌다.
나는 4·3을 이제야 조금 알았다.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를 무대 위에서 전할 것이다.
또박또박 이야기할 것이다.
우릴 기억해 달라는 듯,
제발 잊지 말라는 듯,
나를 압도한 이름들 앞에 그렇게 약속했고
이 짧은 글을 쓰며 다시 한번 깊이 다짐해 본다.



동박아시, 고이래

“이상하군요.
과거를 들춰내는 게 왜 괴롭죠?”

강선웅 역 윤일식

〈금조이야기〉 〈유원〉 〈동백당; 빵집의 사람들〉 〈윙키〉

송인우의 두려움과 사랑을 연기하며
4·3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이 공연이 조금이라도
애도와 위로가 되기를.

배우인터뷰_송철호



동박아시, 고이래



“발굴된 편지를 읽어가면서,
누나의 비밀을 알아가면서 판단력이 점점 또렷해지는 게 아니라,
점점 흐려졌어요.....”

송인우 역 **송철호**

〈사물라시웅〉 〈팬데믹플레이〉 〈닐 암스트롱이 달에 갔을 때〉 〈연안지대〉

배우인터뷰_황재희



제주어가 참 매력적입니다.
아마 공연을 끝내고도 옛 우리말의 아름다움이
잘 살아있는 제주어를 관심있게 들여다볼 것 같아요.
노동, 인권, 역사와 관련한 작품들 속에서
시의성 있는 실존 인물들을 배우로서 제법 많이 맡아왔습니다.
현재에 발을 딛고 싸우는 사람들은
대부분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 세대를 위하여 투쟁합니다.
국가적 폭력 앞 희생과 안전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돛박아시, 고이래〉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진실과 기억을
길어올리고 나누어보길 희망합니다.
이번 작업을 하며 통하여 새롭게 알게 된
문상길 중위(1928-1948)가 있습니다.
전원 학살 명령에 불복중했던 우리나라 최초의 사형수.
양심과 인간생명 안에서 목숨을 포기하고
정의를 선택하였던 그 님과 정신을 애도합니다.

덧) 제주도에서 만난
4.3 사건 희생자 유족을 비롯하여
작품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많은 도움 주신 분들과
가족에게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거, 그거 까매귀 아니여.
꼭꼭 울어대는 어깨여.”

부춘옥 역 **황재희**

〈정의의 사람들〉 〈아름다운 낯선여인〉 〈7분〉

돛박아시, 고이래



‘죽음은 그렇게 간단했어요’〈기억의 목소리-사물에 스민 431 이야기〉 허영선 글, 문학동네 중에서
죽음이 간단하도록 무차별하게, 잔인하게 자행됐고,
남은 이들의 고통은 절대로 절대로 간단하지 않았음에 마음이 저렸고,
우리가 이 일을 기억하고, 잘못은 인정하는 나라와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이 구절이 기억에 남는다.
책에는 작년 8월에 만나 본 윤옥화 할머니님의 이야기도 있었다.
윤옥화 할머니가 극 중 고이래처럼 어린 나이에 살기 위해
여러 일을 가리지 않고 하셨다는 말씀과 인생에서 행복했던 기억은 없고
슬프고 외롭고 그런 것만 있다는 말씀이 마음에 남았다.
윤옥화 할머니도 우리의 고이래도
이제는 꼭 인생에서 행복했던 기억이 있으시기를 바란다.

동박아시, 고이래



“이제 나라도 해방됐고, 좋은 날만 이실건디.
무사, 걱정 마써게.”

고운정 역 서미영

〈동백당; 빵집의 사람들〉 〈배소고지 이야기; 기억의 연못〉 〈그녀를 용서할 수 있을까〉

‘간발의 차로 삶과 죽음의 경계가 왔다갔다하는 겨울.
바람까마귀 떼만 비린 주검 위에서 인간을 대신해 크게 울부짖었다.
희망이 문틈으로 들어오길 기다렸으나 희망은 보이지 않았다.
그나마 산 자는 살아야 했다.’
〈제주 4·3을 묻는 너에게〉 허영선 글, 서해문집 중에서

“그나마 산 자는 살아야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얼마나 말도 안되고 잔인한 말일까요.
섬은 거대한 감옥이었고,
바다는 통곡의 벽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산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잊었을 뿐.



돌박아서, 고이래

“차라리 저바다 가까이 살면,
아름다운 물 속 세상 구경하고,
조용하고 평화롭게 살 것 같소.”

윤상진 역 **민경준**

〈지는 해의 그림자〉 〈동양극장 1936, 그날 밤〉 〈배소고지 이야기: 기억의 연못〉

배우인터뷰_조성현



고등학교 친구들 중에
골령골 쪽 동네(산내, 가오동) 중학교를 다니던 친구들이 더러 있었다.
우리는 각기 다른 대학에 진학한 후에도 친하게 지냈다.
2000년대 초반, 오랜만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던 중,
'골령골에 무덤이 발견됐고, 공사같은 걸 한다'며
대수롭지 않게 지나치던 기억이 떠오른다.
골령골, <돛박아시, 고이래>는 연습을 할때 공공연히
작품과는 무관하게 내 고등학교 대학교시절 친구들과
미래를 고민하며 서로 다른 동네에 살지만
저녁에 시내에서 술한잔 하던 어릴때를 떠오르게 한다.
작품을 준비하는 과정과 무대 위에 올려질 그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지금의 시간 까지 그 너머의 시간들 속에서
국가폭력이라는 단어속에서 스러져간 수많은 희생자들을 기리고,
격동하는 시절의 젊은 청춘 선배님들에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



“나가 이래봐도 제주도 김정호여,
나 손 안 타민 개발이고 발전이고 되는 중 알았시냐.”

강철구 역 조성현

〈출입국 사무소의 오이디푸스〉 〈동백당; 뽕집의 사람들〉 〈내가 누운 자리〉 〈어느 물리학자의 낮잠〉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들며,
불은 목숨으로 살다보니 살아질 수 밖에 없는 섬의 사람들.
그 시절을, 그 세월을 어떻게 견디며 살았을고, 그들의 대답은 한결같다.
'살았지만 살아진다, 사난 살았주...'



오완순 역 **한은주**

〈불행〉 〈모노드라마 자청비〉 〈동물농장〉 〈양상블〉

“어디 제주도가 제주사름 거라. 돈 하영 이신 놈들 꺼주.”



동백이 피고 지는 섬에서,
어떤 기억들은 오랫동안 말해지지 못한 채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결국 잊지 않는 것.
그리고 남겨진 이야기들을 이어가는 것일 것입니다.
이 무대가 동백처럼 스러져 간 이들을 향한,
짧지만 깊은 진혼이 되기를 바랍니다.



백길선 역 **백지선**

〈말을 버린 사내〉 〈하녀들〉 〈이름을 찾습니다〉

“아명 경해도 산 사름은 살아야주 마썸.”

동박아시, 고이래

이번 공연을 통해 관객분들이 제주 4·3 사건에 대해
조금이라도 더 관심을 가지고 알아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이야기할 때
비로소 역사는 현재와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채도엽

“빌딩 세우고 임대하고 관광객들 끌어모아야 돈을 만지지.
무식하니 말이 안 통해요.”

채진광

“어디냐고! 설마 엄한 곳에 우릴 끌고 온 건 아니겠지?”



채도엽 | 채진광 역 **이의현**

〈배소고지 이야기; 기억의 연못〉 〈마른 하늘에 내리는 비〉 〈개인의 책임〉

4.30이란 끝나지 않는 악몽과 같다.
그토록 두려워하던 '연좌제' 가
또 다른 방식으로 아직까지도
그들의 마음속에 꿰기어있고 남아있는게 아닐까.
과연 완벽한 사과와 보상이란 건 가능한 것일까.



회원(도민) 역 **이현중**

〈장난삼아 연애마소〉 〈배소고지 이야기; 기억의 연못〉 〈별〉

“저 아주망 막 미쳐신게 마썸.
이 판국에 저 안에서 노래를 정 불렀쑤다.”

동박아시, 고이래

1948년에 멈춘 사건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잃고, 이름을 숨기며 살아남아야 했던 삶들 속에서
그 고통은 여전히 '현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멈추지 않는 시간을 무대 위의 지금으로 불러오고 싶습니다.
잊지 않겠다는 마음이 제주의 봄을 다시 부르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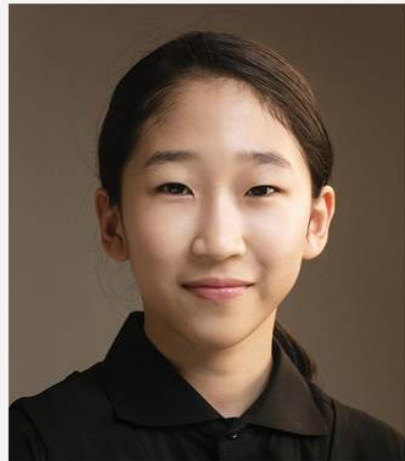
회원 역 **신수호**

〈자취〉 〈Would You Be My?〉

“아이고 저 껏겓. 무사 구신은 저런 거 안 잡아감신고 몰라?”



무엇으로 주민이 큰 피해를 입고 정부는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책의 시작은 '성근 눈이 내리고 있다' 입니다. 제주 43 이야기입니다.
죽는다. 제주의 그 슬픔을 아직 풀지 못한 그 죽음을 짊은 글로 저렇게
표현을 해서 가장 인상 깊었고 잠시 제 마음에 별뉘가 튀는것 같았습니
다. 43 사건을 모르는 어른과 아이들이 제주 43 이야기를 조금이라
도 알게돼서 43 유가족들, 큰 피해로 돌아가신 분을
잠시라도 추모하면 좋겠습니다.



어린춘옥 역 **조인**

〈라몰의 땅 : 땅의 아이〉 〈시소와 그네와 긴줄넘기〉

돌박아시, 고이래



사라지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

사랑한 사람의 품 속에서 배어 나온 체온과, 이름조차 제대로 부르지 못한 채 남겨진 감각들.

먼지 쌓인 기억은 때를 가리지 않는다. 잊었다고 생각한 순간에도 불쑥 튀어 나와 마음 한 가운데를 조용히 휘감는다. 그리고는 가라앉지도 못한 채 그 자리를 맴돈다.

세월이 그 기억들을 덮으려 할수록, 고름이 새어 나오는 상처를 하나씩 펼쳤다.

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대를 세우고 조명을 비춰 이야기를 하는 것 뿐이었지만 말이다.

연극이 끝나고 배우들이 떠난 뒤에도, 빈 무대 위에는 사라지지 못한 것들이 아직 공기에 스며 있다. 이젠 그 메아리를 관객들이 잊지 않길 바라는 마음 밖에 없다.

전해지지 못한 문장들, 그날의 서늘한 기억, 그날의 사람들, 그리고 끝내 돌아오지 못한 이름들까지.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멈출 수 없다. 아니, 멈추지 않아야 한다.

사라지지 않는 것들을, 끝내 사라지지 않게 하기 위해.

돌박아시, 고이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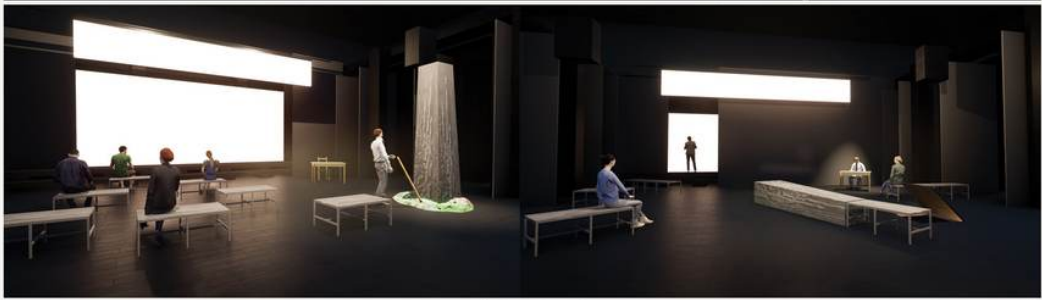


조연출 이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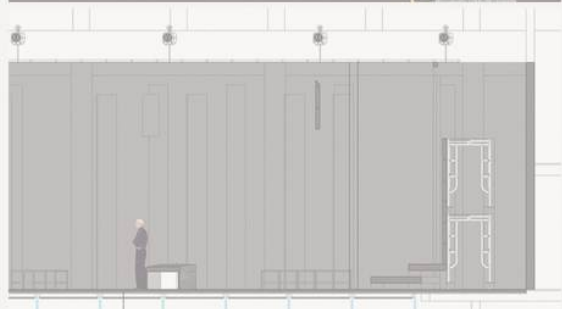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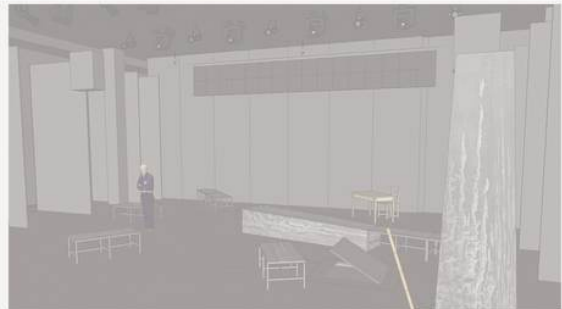
연극 〈통소소리〉 조연출

연극 〈변론〉 조연출

오페라 〈사랑의 묘약〉 조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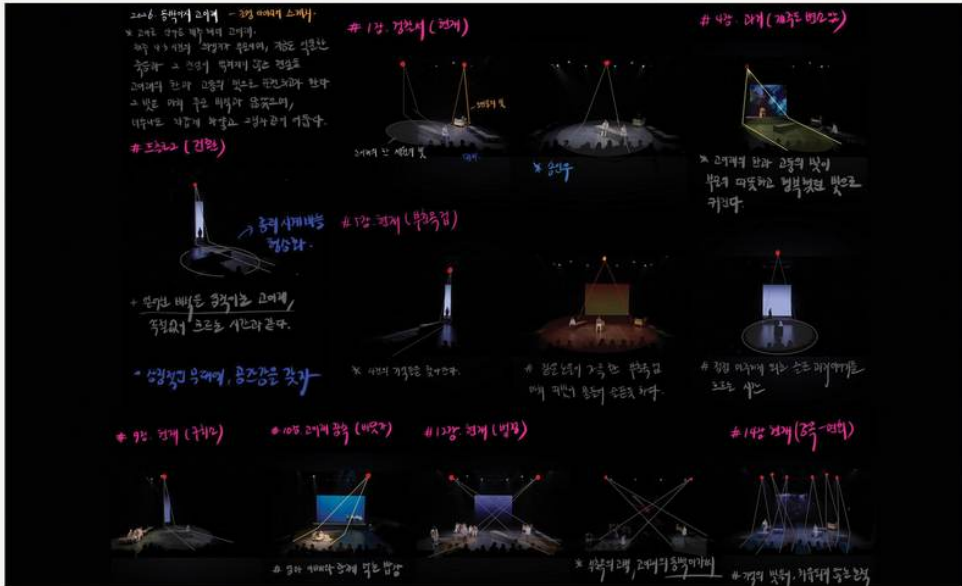


이어져 있는 두 개의 시간 사이에는
오랜 침묵의 시간이 존재한다.
이 무대는 그 사이에 놓여 있는 기억의 시간을 바라본다.
무대 위의 큰 비석 하나가 쓰러진채 놓여 있다.
이 비석은 장면의 흐름에 따라 다양한 공간으로 변화하며
관객을 과거와 현재 사이의 시간으로 안내한다.
마치 멈춰 있던 시계가 다시 움직이듯
무대 위의 시간도 천천히 흐르기 시작한다.
그 흐름을 따라 관객은 점차 과거의 시간과 마주하게 된다.
무대에 놓인 오브제들은 찢기고
금이 간 모습으로 존재한다.
이는 오랜 시간 남겨진 상처와 기억의 흔적을
시각적으로 드러낸다.
막이 열리고 닫히는 사이
무대는 과거와 현재를 오가며
서로 다른 시간들이 한 공간 안에서 교차하도록 만든다.
법정에서는 관객들도
그날의 재판을 지켜보는 방청객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그 시간을 함께 판단해야 하는 배심원이 된다.
조용히 숨을 고르며
그날의 이야기를 끝까지 바라보는 일.
그리고
잊혀졌던 시간을
다시 한 번 함께 기억하는 일.
이 무대를 통해
아픈과거의 진실과 잊혀진 세월을
오늘의 시선으로 다시 마주하길 바란다



무대디자이너 정승준

연극 〈닐 암스트롱이 달에 갔을 때〉 무대디자이너
연극 〈서재 결혼시키기〉 무대디자이너
연극 〈명태 말고 영태〉 무대디자이너
연극 〈땅밀레〉 무대디자이너



고아로 살아온 제주해녀 고이래.

제주 4.3사건의 희생자가 부모이며, 지금도 억울한 죽음과 그 진실이 밝혀지지 않는 현실을 고이래의 한 - 고통의 빛으로 표현하고자 한다. 그 빛은 마치 추모 비석과 닮았으며, 너무나 차갑게 하얗고 그림자 같이 어둡다.

조명디자이너 **지소연**

연극 <새벽 네시의 안티고네> 조명디자이너
연극 <발현하다> 조명디자이너
연극 <상호작용에 대한 고찰> 조명디자이너
연극 <웃> 조명디자이너

4



<돌박 아씨, 고이래> 사운드 베일리홍

작품에서 사운드는 잠겨있던 기억을 계속 끌어올려 내뿜게 한다. 1948년의 비극과 2003년의 현재를 잇는 소리들은 파편화된 진실을 불러내고, 오랫동안 침묵을 강요당해 온 이들의 삶을 증언하는 장치로 기능한다.

작품을 관통하는 핵심 선율인 '돌박 아가씨'는 극 중 원곡 그대로 연주되지 않는다. 대신 쓸쓸한 허밍과 왜곡된 선율로 분해되어 곳곳에 스며든다. 원곡의 부재 속에서 끊임없이 변주되는 이 파편들은 고이래의 삶 속에 박힌 지워지지 않는 기억이자, 그가 끝내 지켜내고자 했던 삶의 의지를 상징한다.

2003년의 현실은 건조한 실음으로 구성해 관객을 목격자로 상징하고, 1948년의 과거는 객석 전체로 확장된 몽환적 사운드로 관객을 기억의 심연으로 끌어온다. 또한 제주의 생명력을 담은 해녀의 숨비소리와 시간을 움직이는 비석의 묵직한 마찰음을 더해, 시각을 넘어선 청각적 타격으로 지난 시간들의 무게를 전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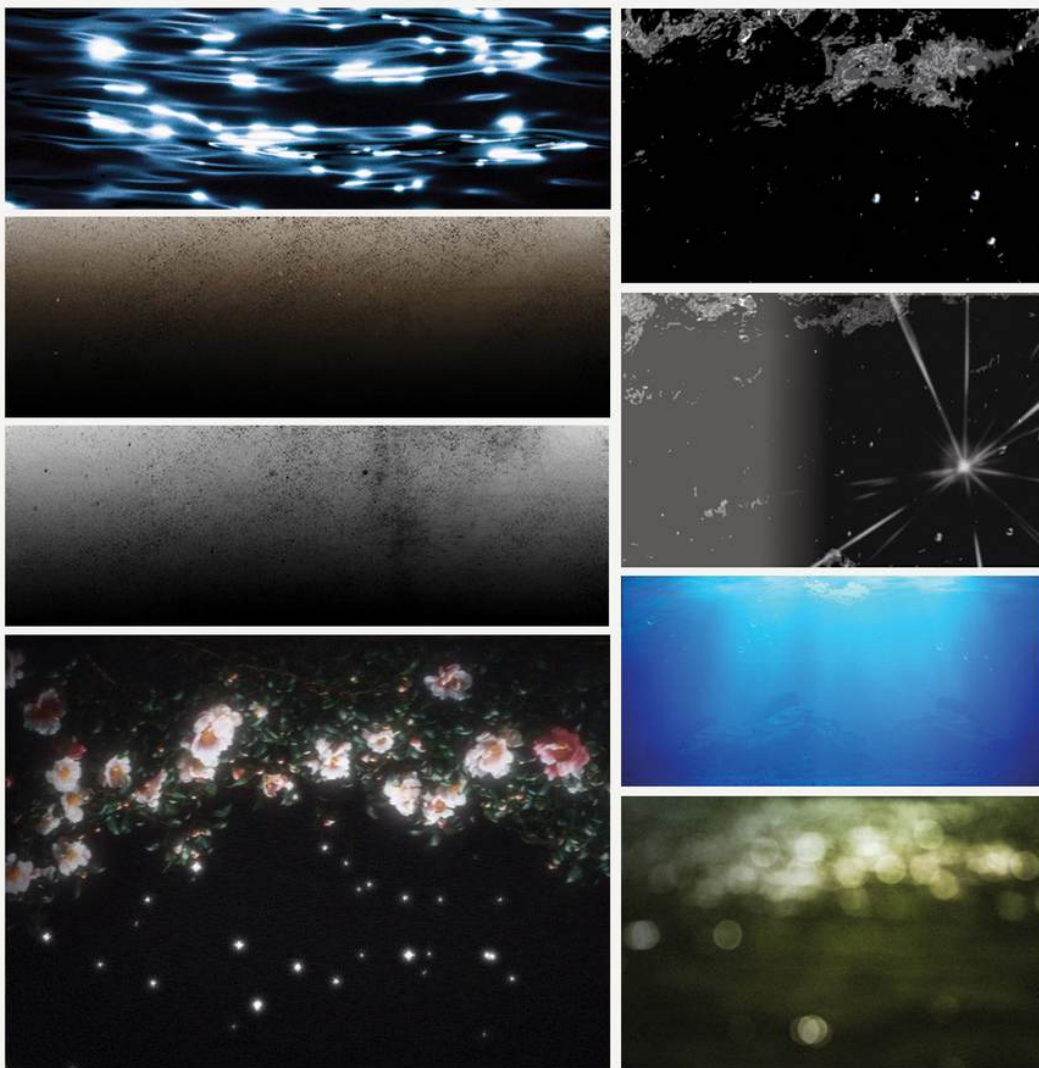
내뿜어진 소리의 파편들이 동백처럼 단단히 피어나길 바란다.

사운드디자이너 **베일리홍**

연극 <키리에> 사운드
연극 <아들에게(미옥 엘리스 현)> 사운드
연극 <19호실> 사운드
연극 <천 개의 파랑> 음악
다원 <밤이 없는 여름> 사운드

돌박아씨, 고이래

동박아시, 고이래



영상은 온전한 형태로 남지 않으며, 드러나지 않고 머무는 기억을 따라 감각에 가까운 이미지로 구성했다.

이미지는 그 자체보다

어떻게 읽히는 지에 따라 다른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영상 속 공간 또한 유사한 인상을 유지하면서도,

이질적인 재료와 질감으로 이루어져

형태를 우회적으로 드러낸다.

기억은 흐릿하게 번지거나 스쳐 지나가는 상태에 가깝다.

따라서 영상은 빛, 보케, 입자, 노이즈와 같은 요소로

분해된 이미지들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고이래에게 부모는 실제로 경험된 기억이 아니기에

이미지를 명확히 보여주기보다는

다른 질감과 구조를 통해 감각적으로 인식되도록 했다.

이 요소들은 서로 겹치고 축적되며 흐름을 형성하고,

대부분의 장면은 형상을 제거한 채 이어지다가

마지막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하나의 선명한 이미지로 드러난다.

영상디자이너 **장주희**

연극 〈Pool〉 영상디자인

연극 〈이상한 어린이 연극 -오감도〉 영상디자인

연극 〈그의 어머니〉 영상디자인



의상디자인 이미지

의상디자이너 **조현정**

연극 〈동백당; 뽕집의 사람들〉 의상디자인

연극 〈동화동경〉 의상디자인

연극 〈뿔뿌리〉 의상디자인

연극 〈배소고지 이야기; 기억의 연못〉 의상디자인



윤상진

고이래



부준옥



송인우



고은정



강선웅



채도엽 / 채진광



오원순



강철구

제주 4·3사건이라는 역사적 기억을 바탕으로 한 작품
〈뚝박아시, 고이래〉를 준비하며, 무대 위 인물들의 삶의 흔적을
분장으로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에 대해 고민했다.
그 시대를 살아낸 사람들의 얼굴에는
말로 다 담기지 않는 이야기들이 스며들어 있기 때문이다.
분장은 단순한 외형의 변화가 아니라,
그들이 지나온 시간과 삶의 결을 시각적으로 드러내는 작업이라고 생각했다.
이번 작품에서는 제주 바다와 함께
살아온 해녀들의 삶에 주목했다.
거친 바람과 강한 햇빛, 차가운 물 속에서 이어온 노동의 시간이
피부의 질감과 색감, 그리고 표정의 깊이 속에
자연스럽게 드러나도록 표현하고자 했다.
과장된 표현보다는 오랜 생활 속에서 쌓인 삶의 흔적을
담담하게 드러내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또한 노역을 감당해야 하는 인물들의 삶의 무게 역시
분장을 통해 자연스럽게 드러나기를 바랐다.
이러한 작은 시도들이 배우의 연기와 어우러져
인물들의 이야기가 더욱 설득력 있게 전달되기를 기대한다.
무대 위 인물들의 얼굴에 담긴
삶의 무게와 시간이 관객에게도 전해져,
작품이 품고 있는 기억과 감정이 함께 호흡되기를 바란다.

분장디자이너 **전주영**

연극 〈페르귄트〉 분장디자인

연극 〈햄릿〉 분장디자인

연극 〈맥베스〉 분장디자인

연극 〈베로나의 두 신사〉 분장디자인

뚝박아시, 고이래

2024년 루마니아 바벨 아트 페스티벌 초청작 〈배소고지 이야기〉
Babel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Festival(BABEL F.A.S.T) in ROMANIA

2024년 국립극단 기획초청 Pick크닉 〈배소고지 이야기〉

2023년 이집트 샴엘셰이크 국제연극제 〈배소고지 이야기〉
Sharm El Sheikh International Theater Festival(SITFY) in EGYPT

《대상 | 연기상》

2023년 대한민국연극제 제주대회 〈배소고지 이야기〉

《대상 | 연출상 | 최우수연기상 | 연기상》

2023년 대한민국연극제 서울대회 〈배소고지 이야기〉

《대상 | 연출상 | 무대미술상》

2020년 서울연극제 〈환희 물질 화상〉

《우수상 | 연기상》



프로덕션아이디에이

다양한 예술인들이 모여 시간과 기억,
현재의 감각이 만나는 지점을 탐구하는 공연예술 단체다.
형식과 장르의 경계를 넘나들며
동시대 관객과 호흡하는 무대 언어를 모색해왔으며,
동시에 다양한 장르적 시도를 통해
일상의 감정부터 사회적 질문, 미래에 대한 상상까지 폭넓게 다룬다.
관객이 지금 이 세계를 새롭게 바라보고 사유할 수 있는 작품을
지속적으로 창작하고 있다.

대표작

〈돌박아시, 고이래〉
〈동백당; 빵집의 사람들〉
〈배소고지 이야기〉
〈그녀를 용서할 수 있을까〉
〈환희 물질 화상〉



창작진

작

이미경

연출

김희영

출연

고이래 역 황세원
강선웅 역 윤일식
송인우 역 송철호
부춘옥 역 황재희
고운정 역 서미영
윤상진 역 민경준
강철구 역 조성현
오완순 역 한은주
백길선 역 백지선
채도엽/채진광 역 이의현
회원(도민) 역 이현중
회원 역 신수호
아린춘옥 역 조 인

스태프

무대디자인 정승준
조명디자인 지소연
사운드디자인 베일리홍
영상디자인 장주희
분장디자인 전주영
의상디자인 조현정
그래픽/사진 김 술 (보통현상)
무대감독 우승권
음향감독 이재형
프로듀서 서희원
기획보 맹영지
조연출 이정화
접근성매니저 권지현
접근성자막해설디자인 임민정
접근성자막오퍼 이수림
음향오퍼 강주희
영상오퍼 한채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극장 스태프 명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정병국
사무처장 송시경
예술극장장 홍승욱

무대예술팀

팀장 진용남
무대 유창대 이동선 박민호 김인성
서지훈 원소미 이지언 이미현
진형주 박영규 최명인
조명 이주환 곽현주 탁형선 김병구
박선임 이해영 김도형
음향 도명호 김경남 허선영 김종현
남영모 유준상 정하윤
무대기술 119 지원센터 김희선 김하진 이은주 김수진
꿈발극장 신통한 신동우 허강진

극장운영팀

팀장 홍승욱
제작·기획 이유진 황금실 김자은 김민주
장현진
창작산실 기획·운영 박성은 임재연 박현정 심정훈
두송희
대관 최정호 최예슬 김예진
홍보 이재일
어린이청소년지원사업 박영준
고객지원센터 편영란
하우스 변고은 이경민 황수희 박유진
김수현
티켓 강서연 최민주 김예원 길효나
사설 이기복 박성국 박동진 윤지환
유호성 김부형 진호택
꿈발극장 정준원 김지수 이재이

동방에서, 고이래

제주의 바다는 고요하고 청명하지만, 그 물결 아래에는 오래도록 함구되었던 이야기들이 잠들어 있습니다. 연극 「돛박아시, 고이래」는 그 조용한 바다 밑에서 오랜 세월 숨죽여 있던 기억을 진심과 정성을 다해 무대 위로 끌어올리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제주 세화리 해녀 ‘고이래’의 이야기에서 출발합니다. 한 여성의 의문스러운 행동을 둘러싼 질문이 그녀가 평생을 짊어진 세월의 무게만큼 무거운 시간의 추를 제주 4·3 사건으로 되돌리면서, 그 속에서 억눌려 왔던 사람들의 목소리와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기억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제주의 바다가 깊이 품고 있는 파도의 조각처럼, 오랫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들이 무대 위에서 하나의 서사로 생생하게 살아납니다.

「돛박아시, 고이래」는 제작진의 제주 4·3에 대한 진심어린 탐구와 열정적인 노력 속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제작진은 제주 곳곳을 직접 답사하며 4·3의 흔적을 따라 걸었고, 생존자와 유가족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으며 그 기억의 무게를 마주했습니다. 배우들은 제주어의 결을 살리기 위해 사투리를 익히고, 그 말이 품고 있는 정서와 삶의 온도를 몸으로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만들어진 무대는 단순한 재현을 넘어, 기억을 향한 깊은 존중과 진정성을 담아냈습니다.

2025년 이 작품이 제주 Be IN:(비인) 공연장에서 처음 관객들과 만났을 때, 우리는 단순한 공연 이상의 시간을 경험했습니다. 수많은 배우들의 진심 어린 연기는 과거와 현재를 이어 주었고, 관객들은 역사와 기억, 그리고 인간의 삶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는 순간을 마주했습니다. 그것은 단지 한 지역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서로 이해해야 할 시간에 대한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돛박아시, 고이래」가 서울 대학로예술극장에서 새로운 관객들과 만나게 됩니다. 제주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가 더 넓은 무대에서 울림을 이어가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 작품이 전하는 목소리와 기억이 더 많은 이들의 마음에 닿아,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시간과 역사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이처럼 깊은 울림의 공연을 만들어준 제작진분들에게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재)제주콘텐츠진흥원 **임재하**
주임 연구원

도움주신분들

제주작가협의회장 오승국 작가님

4.3생존자 인터뷰이 고완순 백여옥 오순명 오인권 윤옥화 옥자

영성자료 노무현재단

제주어감수 김효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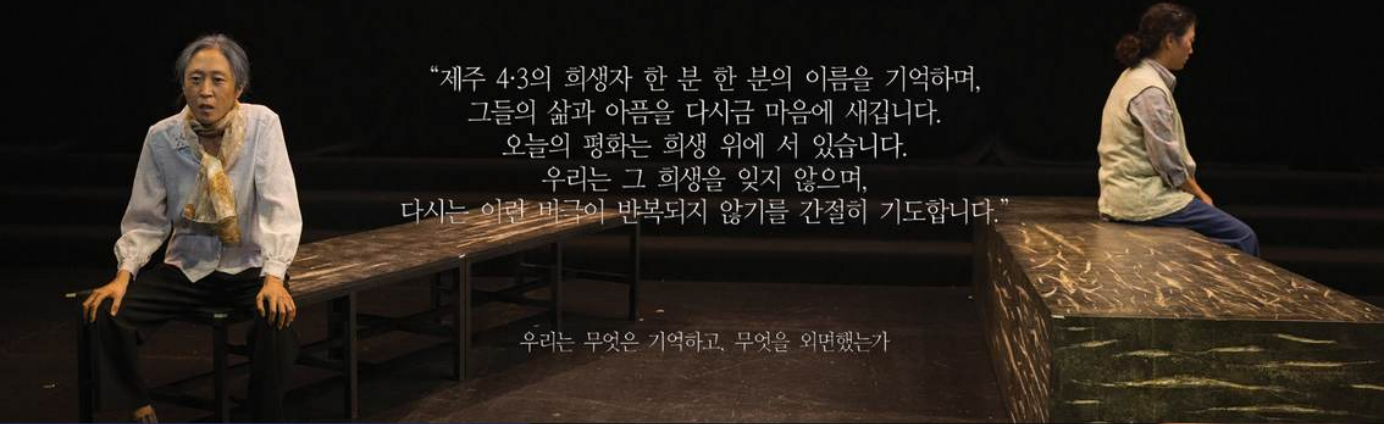
제주비인극장 임재하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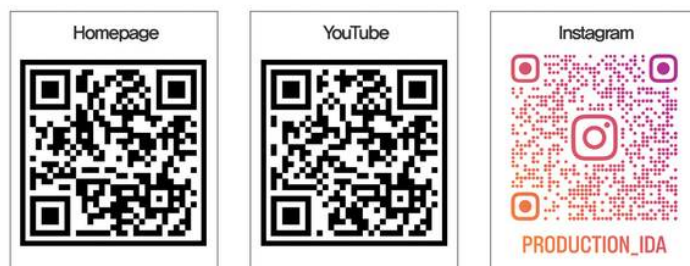
2003년 제주의 봄,
쓰러진 동상 옆에 앉아 있던 해녀의 재관



“제주 4·3의 희생자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기억하며,
그들의 삶과 아픔을 다시금 마음에 새깁니다.
오늘의 평화는 희생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그 희생을 잊지 않으며,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외면했는가





연극 <동박아시, 고이래>
프로그램북

초 연 2025년

재공연 2026년

발 행 프로덕션IDA

디자인 김 솔

사 진 김 솔 / 이강물

발행일 2026.03.31.

이 프로그램북은 연극 <동박아시, 고이래>의 창작 과정과 그 시간을 함께한 사람들의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